

경제부총리 이용섭·조윤제, 사회부총리 김상곤·김부겸 거론



9분 걸어서...청와대 관저 첫 출근 문재인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15일 오전 관저 출입문인 인수문을 나서고 있다. 뒤쪽에 김정숙 여사가 출근길을 바라보고 있다. 앞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문 대통령,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총괄팀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조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새 정부의 첫 입각 후보자에 대한 마킹이 무성하다.

15일 청와대 측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검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관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된 일부 인사의 경우 이를 위한 동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각 논의를 위해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각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초대 내각 명단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조윤제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비상경제대책단장인 이용섭 전 의원,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 진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부총리로 내정됐다가 탄핵으로 흐지부지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여당 내 4선 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거론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는 김부겸·김두관·박남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도종환 의원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거명된다. 박양우·조현재 전 차관도 물망에 오른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와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출신으로 송영길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이낙연 총리후보자 면담

법무장관 전혜철·박범계·우윤근

통일장관 우상호·송영길 후보군

통일부 장관으로 우상호 원내대표, 홍익표·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부총장의 이름도 나온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백 전 의원과 황 전 총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혜철(사법연수원 19기)·박범계(23기) 의원과 우윤근(22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있다. 또 소병철(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신현수(16기) 김앤장 변호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는 신정훈 전 의원과 이개호 의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과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전북 출신의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등이 물

망에 오른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김용익 전 의원과 함께 이석현·양승조 의원 등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재갑·정현욱·정병석 전 차관 등의 이름이 나온다.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한 한국주식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전 상근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국도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이준희 세종특별시장과 변창욱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정식·윤호덕 의원 이름도 나온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김영춘 농해수위원장과 박남춘 의원의 이름이 나오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변재일·김병관 의원, 물리학자 출신인 문미옥 의원이 거론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유은혜·진선미 의원과 이미경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은 김홍식 가천대 대외부총장과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등이, 공정거래위 위원장으로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홍종학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조 교수와 홍종학 전 의원 등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도 금융위원장 후보 중 한 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25일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4당 원내대표 합의...31일 인준 표결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1일 총리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인 정성호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후덕(재선)·전혜숙(재선)·이철희(조선)·제윤경(조선) 의원이 추천됐다.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경대수(재선) 의원을 비롯해 박명재(재선)·정태욱(조선)·김성원(조선)·강효상(조선) 의원 등 5명을 추천했고, 바른정당은 3선의 김용태 의원 1명을 추천했다. 국민의당은 다음날 선출되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인사청문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고,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1일까지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한편 이낙연 후보자는 "새 총리는 의전총리 또는 방탄총리가 아니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책임총리는 법적인 개념도, 정치적으로도 확인된 개념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내가 법적인 총리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국무위원 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찰, 수사권 조정 대비 개혁안 준비 착수

독립 수사부서 설치·중립성 보장 조직, 인사제도 등 마련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자 경찰도 내부개혁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권한이 커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이에 뒤따르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올 6월 말까지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15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은 종전에는 중장기 청사진을 중심으로 수사 발전방안을 내놨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의 공약을 즉시 이행할 '각론' 만들기 등에 주력한다.

종합계획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지안감)이 총괄하고, 수사구조개혁단에 총경급을 팀장으로 한 '수사혁신팀'을 뒤 실무직임을 맡겼다.

수사혁신팀은 대선 직전인 이달 초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수사권 조정이 포함되자 선거 이후

상황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구성됐다.

혁신팀 핵심 과제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이다.

여기에는 경찰청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수사경찰만의 별도 인사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직무 독립성 보장,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경찰의 법률지식이 검찰보다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 등에 관한 세부 대응책도 마련한다. 수사경찰 기피현상 등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 각론 마련을 위해 일선 수사경찰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경찰청은 올 3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4월까지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안 등 아이디어를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개편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산의 눈으로 오월을 보자

2017 과산 오월 문화축제

2017. 5.16~5.31
광산문화예술회관
(송정공원역2번 출구)

주최: 광산광역시 광산구
협력: 5·18기념재단, (사)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일본 일어서라합창단, 416합창단, 광산구립합창단, 창작관소리12바탕 추진위원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카펠라그룹 더 프레젠티

오월 청년콘서트
오월의 미래
5.16(화) 19:30 문예회관 공연장
아카펠라그룹 더 프레젠티
특별출연 신새벽
무료공연&감동후불제

오월 국제교류음악회
광산구립합창단-일본 일어서라(いそら)합창단
5.18(목) 19:30 문예회관 공연장
광산구립합창단(지휘 정유하)
일본 일어서라합창단(대표 시미즈 노리코 清水のり子)
416합창단(지휘 박미리)
민중가수 류와남
무료공연&감동후불제

티켓오전 공연 2주 전에 매 차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연문의 광산구 문화기획팀 062)960-8989

더불어 새해의 민족주의 작곡가로 오월을 만나러
오월 기념음악회
오월의 필링 Feeling of May
5.20(토) 17:00 문예회관 공연장
지휘 정필태(유니버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협연 더럼베이스 콰르텟, 조선대 교수중창단
연주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관람료 5,000원

오월 판소리 토크콘서트
광산하우스콘서트 18
오월의 노래
5.31(수) 19:30 문예회관 공연장
소리 임진택(창작민소리12바탕 추진위원회 예술총감독)
고수 이재영
관람료 1,000원(천원의 행복)

오월 전시
오월 사진전
5.16~5.31 문예회관 로비